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밤샘과제를 하고 집에가는 길이었다

과제에 시험에
할일이 왜이렇게 많은거야



때마침 순찰을 끝내고 들어가는
경비아저씨와 마주쳤다

아이고, 학생
오늘도 밤샘공부한거야?
조심히 들어가!

네, 아저씨!
아저씨도 오늘하루
고생많으셨어요!



그때 열린 경비아저씨의 방문 사이로
고속철도 도면과 두꺼운 전공서적들이 보였다



아저씨
혹시 철도공학
공부하세요?

아, 이거?
내 옛날 본업 복습 좀 하느라.
내가 북한에 있을 때 15년 동안
기관차만 만지던 정비공이었거든

?!



내가 너무 놀라 아무말도 못하는사이
아저씨는 담담히 말을 이어나가셨다

남한에 오니까
철도가 전부 컴퓨터 제어라 기술이 너무 달라서..
자격증을 다시 못 따고 경비 일을 시작했지.
그래도 이렇게 틈날때마다 매번
철도 관련 책을 보



통일이 되면 말이다
남한의 첨단 철도 기술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매서운 추위나
넓은 선로 특성을 제일 잘 아는 건
우리 같은 현장 정비사들이거든

유라시아

남북 기술이 합쳐져야
기차가 안 멈추고 대륙까지 달리지
그날 1호 열차 정비는
내 손으로 꼭 할 거다

아저씨와 이야기를 마친후 건물을 나와 뒤돌아보니
모두가 떠난 밤,
홀로 불을 밝힌 경비실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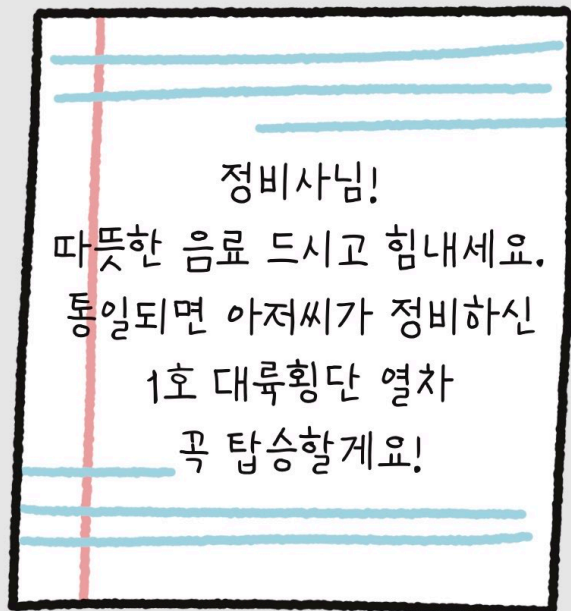
나는 한참동안 그곳을 가만히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뒤



어 이게 뭐지?

나는 경비실에 작은 쪽지와 캔커피를 두고나왔다



그날 처음 알았다
어쩌면 통일은 거대한 변화나 복잡한 일만이 아닌

누군가에겐 멈춰 있던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날인지도 모른겠더라고